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인본 중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경관 편집인:김종용 편집:양재웅

청지기훈련,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일시_ 10.28(금) 저녁 7:00

주제_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24)

강사_ 김경관 위임목사 대상_ 모든 성도

이번 주 금요일양집회 시에 청지기훈련을 합니다. 훈련이라기보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복음의 잔치입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번 청지기훈련은 더욱 특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참 복음과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없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믿음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오셔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의 강간화와 청지기훈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당일 훈련을 진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청지기훈련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마 26:41).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나오십시오(사 55:6). 아가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예배실도 준비되어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당일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교회에 오실 때에는 급급히 대중교통이나 카를을 하여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발걸음을 재촉하십시오.

*청지기훈련 안내 및 좌석 안내, 본지 7면

제44대 장로 · 제24대 안수집사 제52대 권사 임직예배

일시_ 10.26(수) 저녁 7:00

임직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예배 시에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입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복음에 전심전력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입니다. 임직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이들이 들어가야 할 길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로 15:16).

*제44대 임로피택사 주재발표 요약, 본지 4면

*다들 주일(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의 다툼 (고린도전서 6:1-7)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핵심을 놓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교될 경향이 많다.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다툼"이라는 점이다. 다툼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다툼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삶, 그 자체이다. 바로 옛 자아와 새 피조물과의 다툼은 매 순간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다툼은 세상사의 다툼과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이 다툼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항상 문제는 심각해진다(고전 6:1).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다툼이 일어났을 때 결론적인 해결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자들 간의 화합을 깨뜨릴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혈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보혈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3)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불의한 자들"(고전 6:1)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빌 2:5).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마 11:28). 우리가 십자가를 떠날 때 의인은 없다(로 3:23). 따라서 십자가의 보혈이 다툼 해결의 핵심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보혈과 관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마 3:2, 4:17)뿐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마 5:16)로 가르쳐주셨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요일 3:14-16).

● 신자들의 판단은, 기준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결론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듯이, 신자들의 판단과 기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저까지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전 6:2). "성도"는 보혈과 관계를 맺었기에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예수가 있지만 세상에는 예수가 없다(단 7:22; 마 19:28). 그래서 그 무엇보다 쉽고 확실하게 판단이 된다. 세상에는 큰 것이나 참 지혜가 없다(고전 6:3,5). 매일 다툼 해결의 기준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 다툼은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가? 다툼은 교회를 위해 가운데 빠지게 한다. 사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마귀가 사람들을 환경을 이용하여 다툼을 일으켰을 때 차라리 속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전 6:7).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의 문제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모든 과정을 보시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이다(잠 20:22; 뱀전 2:22-23). 다툼은 분명히 결실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하지만, 십자가가 있다면 오히려 복음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다툼에 세상의 법과 가치를 끌어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회개해야 한다(고전 7:5; 빌 2:7-11).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히 5:8-10),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다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자. 이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다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³⁹⁾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⁴⁰⁾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⁴¹⁾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⁴²⁾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⁴³⁾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39~43)

Both of the crucified criminals that hung next to Jesus were under God's condemnation. They were sinners with a death sentence at hand. During their final moments of life one took a different path. Both heard Jesus pray to God about His crucifier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k. 23:34). Both heard the sneers from the crowd and the rulers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the Chosen One" (Lk. 23:35). One of the crucified criminals responded to Jesus by hurling abuse at Him, mockingly saying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Lk. 23:39). The other criminal immediately rebuked him, saying "Don't you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Lk. 23:40~41). This criminal had almost no chance of salvation because he never saw Jesus' miracles or ministry, and he was at death's door step. The only real thing he witnessed about Jesus was His prayer, and yet this was enough. What did Jesus' final words to this criminal mean?

Jesus' words to this criminal were about pardon. The Bible doesn't mention this criminal's name, age, or even the crime committed, but it does disclose the evidence of God working in his heart during his last moments. Somehow this criminal became aware of God's knowledge. He believed what Jesus said. He became reverent toward God, "Don't you fear God" (Lk. 23:40). He confessed his guilt,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Lk. 23:41). From his heart he prayed to the Lord Jesus, and his prayer was answered. He was given the assurance that his sins were forgiven and the promise of life,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Jesus' words to this criminal were personal. This criminal never heard Jesus preach, only saw Him suffering and dying on a cross. He heard Jesus pray, and he looked at Jesus as his Lord and Savior w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Lk. 23:42).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Isn't this criminal's faith wonderful? I honestly think this criminal's faith is more amazing than anyone else since the Garden of Eden. My heart leaps for joy when I think about him. A lot of people that surrounded Jesu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worshipped and praised Him, and at the last minute cried for Him to be crucified. This guy lived most of his life in sin, and at

the last moment truly worshipped and praised Him as Lord. This criminal expected Jesus to complete His work. He prayed, "Remember me" (Lk. 23:42). Surely such faith has never before been found! Somebody who knew little to nothing about Jesus during his whole life, and then at the last minute while dying sees Jesus as his Savior is truly amazing. Can you believe that a person can have that kind of faith?

Jesus' words to this criminal were about paradise,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All believers will be in heaven when death comes. This criminal's final dying moment with Jesus at his side was completely comforted in the knowledge that even though he was dying to this world, he would soon be living in heaven. The problem of death was solved in the promise of paradise! This criminal was literally dying on a cross next to Jesus. He saw Jesus dying on His cross, and yet still believed in Him. Everything was done and taken care of for him when Jesus tol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The promise of paradise and the problem of death were all solved in this one statement. Eternity was just a step away. No soul can sleep unconsciously. Many people think that when you die nothing happens; they think you just slip into unconsciousness. When Jesus returns all bodies will be resurrected. Some will be resurrected for heaven, and some will have to get up to go to hell. Everyone will be very conscious of their surroundings! Salvation does not come to someone because of their works or religious acts, nor does it come because of their achievements. Just look at this criminal who had no time left to do anyone or anything good. Salvation only comes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My dear friends, today is Reformation Sunday and I want to really, deeply, honestly, and simply challenge your faith. Is your faith directly related to heaven? Today you praise Jesus, but what about later? I envy this criminal's powerful faith. So many times I have rejected Jesus. So many times my pride and emotions have distracted me from focusing on Jesus and paradise.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Do you really believe in heaven? In the most terrible of situations, Jesus saved this poor criminal;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I hope your faith is as genuine as this criminal, so that you can be with Jesus in paradise. God bless you always. Amen. 🙏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³⁹⁾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⁴⁰⁾“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⁴¹⁾“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⁴²⁾“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9~43)



김성관 목사

예수님 앞을 지나가며 달린 두 행악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유죄였
 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죽게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두 행악자 모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두 행악자는 군중과 지도자들의 비웃음도 들
 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눅 23:35). 이 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
 원하라”(눅 23:39)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의 행악자는 즉
 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
 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역을 본 적이 없는 상
 태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었습니
 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 실제로 목격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지만, 이것
 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행악자에게 어떤 의미
 있었을까요?

용서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악자의 이름, 나이, 심지어 죄목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경은 마지막 순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셨다는 증거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
 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눅 23:40). 또 그는 자신의 죄
 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눅 23:41). 그는 진실로 주 예수님을 기도하여 용
 서받았습니다. 그는 죄 사람과 아울러 새 생명의 약속을 보장 받았던 것
 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
 리라”(눅 23:43).

개인적인 대화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행악자
 는 결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고
 난 받으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을 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
 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은 그를 보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이 행악자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로 이 행악자의 믿음이 예전 동산 아래로 살았던 누
 구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저의 심장은 기뻐
 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반면 이 행악자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지만, 진
 실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행
 악자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나를 기
 억하소서”(눅 23:42)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믿음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던 이가 마지막 죽어가던 순간
 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다니 진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이
 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에 관한 대화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낙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진
 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모든 신자는 죽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행악자에게는 완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지만 곧 천국에서 살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천
 국의 약속을 믿어 해결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 옆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
 심을 보았으나 여전히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행악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담당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
 으리라”(눅 23:43). 이 한 마디로 인하여 낙원의 약속과 죽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의식 없이 잠
 자는 영혼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도 아무 일도 없었으며, 단지 의
 식 없는 상태로 스스로 빠져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는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어
 떤 사람은 지옥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 때는 의식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변 상황을 아주 잘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사역이나 종교적 행위는 물론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
 를 보십시오. 그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시간도 없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진실로, 깊이, 진
 솔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과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만,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이 행악자의 강력한 믿음이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과 낙원에 대한 초점이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여려
 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천국을 믿습
 니까? 천국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불쌍한 행악자를 구원하셨습
 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라”(눅 23:43). 여러분의 믿음이 이 행악자처럼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
 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

제44대 장로피택자 주제발표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

엘리아를 통한 기적

엘리아는 예수님 탄생 전 9세기경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일깨우면서 바알 신을 타파한 선지자였다. 엘리아의 이름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물에 젖어 있으며 길르앗 지방의 다셋 마을 사람이었다. 엘리아는 불 말과 불 수레를 타고 승천하였다.

① 가뭄을 선포하다(왕상 17:1)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②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아를 먹이다(왕상 17:2~7) 엘리아는 숨어 지내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 받았다.

③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다(왕상 17:8~16)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는 엘리아의 말에 순종하여 대접함으로 먹을 양식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④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다(왕상 17:17~24)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엘리아의 기도로 다시 살았다.

⑤ 갈멜 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다(왕상 18:19~40) 엘리아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거 하였다.

⑥ 큰 비로 응답을 받다(왕상 18:41~45) 엘리아가 갈멜 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쏟아지는 장대비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3년간의 가뭄도 끝났다.

⑦ 오심부정과 군대를 불로 태우다(왕하 1:1~16) 엘리아를 잡으려 온 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죽게 된다.

⑧ 걸음으로 요단 강을 가르다(왕하 2:1~14) 엘리아가 걸음을 밟아 물을 차자 물이 여러 차례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간 것이다. 이후 엘리아는 승천했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

엘리아는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때 아벨므솔라 출신으로 본래 농부였다. 밭을 갈던 중에 엘리사를 만나 기쁨부음을 받았다. 엘리아 선지자가 승천한 후, 그의 뒤를 이어서 5대 왕인 여호람 때부터 6대 왕인 요아스 때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① 엘리아의 걸음으로 요단 강을 가르다(왕하 2:13~14) 엘리아의 걸음을 주위 엘리아가 행했던 것처럼 물을 차자 요단 강 물이 갈라졌다.

②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키다(왕하 2:19~22) 엘리아는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 뿌려 물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③ 대머리와 조롱한 아이들을 치하다(왕하 2:23~24)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갑자기 그들이 나와 아이들을 죽였다.

④ 마른 골짜기를 물로 채우다(왕하 3:1~20) 모압을 치러 앗람 광야로 가는 도중 물이 떨어지지 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

⑤ 과부의 기름 그릇을 가득 채우다(왕하 4:1~7)



선지자학교의 가난한 미망인의 집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⑥ 불임의 수면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하다(왕하 4:38~39) 아이를 낳지 못하던 수면 여인이 임신하였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 주었다.

⑦ 국 속의 독을 해독하다(왕하 4:38~41) 독으로 인해 국을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아가 가루를 넣고 독을 없앴다.

⑧ 보리떡 아홉 개와 자루의 채소로 1백 명을 먹이다(왕하 4:42~44)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백 명이 먹었다.

⑨ 나야만의 나뭇잎이 고침 받다(왕하 5:1~27)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요단 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한 후에 고침을 받았다.

⑩ 요단 강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다(왕하 6:1~7)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룻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⑪ 하늘의 군대를 보다(왕하 6:14~23) 사환의 눈을 열어주어 수많은 불 말과 불 병거를 보게 했으며,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다시 보게 해 주었다.

⑫ 사마리아 성의 굴뚝을 해궤하다(왕하 6:24~7:20)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들게 하였고, 이에 아람 군대는 모든 것을 두고 도망쳤다.

⑬ 죽은 시체가 살아나다(왕하 13:14~21) 시체가 엘리아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기적을 통한 메시지

우리의 머리 속에 있는 갈멜 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와 850대 1의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하고, 죽지 않고 불 수레와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엘리아의 모습이 가득 채워져 있다. 신약에서도 4복음서의 기자들, 바울, 야고보가 엘리아를 언급하고 있다. 어쩌면 엘리아의 능력이 선지자 중에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 이전에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엘리아의 시작은 한 마디로 놀라웠다. 온 이스라엘이 엘리아가 무서워 벌벌 떨었다. 엘리아는 자신을 믿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였다. 가뭄을 선포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갈멜 산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큰 비까지 내리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아의 시작은 보잘것없었다. 엘리아는 오랫동안 스승 엘리아를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스승에게 갈멜의 능력을 달라며 따라다니다가 엘리아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엘리아의 하나님에!" 라고 외칠 뿐이었다.

엘리아의 기적에 갈멜의 능력이 나타났던 증거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다. 엘리사가 제1차 전쟁 때 행한 기적은 죄악의 도사였던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을 고치고,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이었다. 지금도 여리고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고 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엘리아를 찾은 가난하고 굶주린 100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다 배부리 먹게 하였다.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복음전파의 역사로 이어졌다. 엘리아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야만의 나뭇잎을 고쳐 주었다. 나야만은 믿을 없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나뭇잎을 치료받은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다. 또한, 아람의 특공대가 엘리사를 죽려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을 뿐, 그들을 다시 살려 주었다. 고국에 돌아간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처럼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을 살펴볼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아와 엘리사로 우리의 삶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1:15). 하나님이 우리와 성질이 같은 죄인을 불러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총이다. 엘리아는 자신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다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얼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다. 엘리아는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고 살수도 있었다. 그러나 갈멜의 능력을 주시고 아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엘리아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피떡받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하나님이 엘리아와 엘리사를 불러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 주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 복음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는다(행 1:8). 아멘.

교회직원팀

누구든지!

● 선교를 준비하며 있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길 기도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서는 부족한 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역의 첫째 날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파 예수 크라"이라는 말만 들으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여느 사역지 사람들과 달리 두 손을 모으고 끝까지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아멘"으로 고백한 일흔이 넘으신 할머니는 "예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세요"라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 순간 내가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구나 라는 확신과 감사가 물려나왔다. 김희진(집사, 전영희목회)

● 오지로 가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곳임을 알려주셨고, 임들 어지럼 만날 만한 영혼을 보내셔서 내가 실망하지 않게 위로하셨다. 사역지로 선교를 왔지만 내 영혼이 전도되었다. 전도 언어 25문장을 외칠 때마다 내 입술로 사역지 영혼에게 선포함이 또한 나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다. 홍정운(집사, 사무국)

● 이번 선교를 통해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 '선교의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면 복음을 받아들이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기준으로 주님이 선택한 영혼을 선별하여 했던 어려서움을 보게 하시고, 곧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박민국(집사, 전산설)

●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소박에 없는 광활한 초원에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다. 혹 지나는 이가 듣기를, 그리고 외치고 있는 내가 듣기를 바라며 외치고 또 외쳤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 물리고, 수풀을 헤치며 한 걸음씩 가를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발걸음이 떠올랐다. 주님은 깊은 용당이가 있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있을 때에는 그 땅의 영혼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지치고 힘들 때에는 준비하신 영혼을 보내서 복음을 고백하며 선포해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셨다. 한영희(집사, 주간 운영)

복음 증거 현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항상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어서, 선교 언어는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저 산너머에 있는 그런 일상적 언어의 나열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말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나와 상관이 없을 때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한가운데에 서서 '가는 단기선교사'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님의 복음을 듣고 나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두려웠고, 나의 내면에서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고 또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고통도 주시고 길도 막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언제든지 주님은 더 좋은 앞길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나 자신 속에서 계속 시험에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너무나 나약하고 기도로 나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나의 믿음의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은 아주 잘 구성된 팀의 팀원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팀 훈련을 하고 언어를 외우고 과연 이 훈련과 이 몇 마디 외운 언어가 정말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선교지 현장으로 날아왔다. 팀 모임 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사역지에 와서, 함께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라지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증거를 보여주시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데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 정말 맑은 영혼들이 우리가 말할 증거하는 앞에 주루룩 서서 기다리며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마중을 나온 것처럼 서 있었다.

말씀 증거 사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저 몇 마디 암송한 언어였고,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이 그저 양부채처럼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다. 그 옛날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 현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이것이 참 진리이구나! 예전에 내가 모를 때는 단지 믿음이고, 성경 구절이고, 언어의 나열이었다. 그러나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때 "나 이제 변화하여 새 사람이었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참 진리를 깨달았다.

이희경(집사, 10교구)

선교의 도구, 주님의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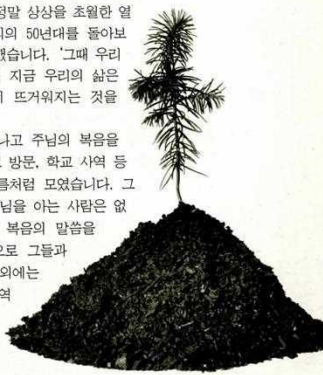
먼저 저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도착한 순간 '이 땅이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실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시가지의 전경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50년대를 돌아보며 그 시절 우리들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단위 가까호호 방문, 학교 사역 등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묵침껏 찬송하며 율동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두, 무슬림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 살아 역 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8박 9일의 일정은 저희들 예전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 니다.

김은혜(집사, 6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3일(목) ~ 10월 21일(금)	22교구 3팀	강영자



참 귀중한 영혼들



이맘 때면 있는 장년4부의 총동원 전도집회. 금년에도 우리는 교회 내외의 70에서 75세까지의, 즉 은퇴 직후 연령의 장년4부 학생들을 모시는 5년차 잔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 번 총동원 전도집회 때에 예상 외로 부진했던 결과가 기억 속에 남아 있어 준비과정 초에는 다소 위축된 분위기였지만, 부장 장로님과 교사 및 학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고 다방면으로 총심한 결과 당일 귀중한 새식구들을 맞이하여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니 모든 사람의 믿음이 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잔치에 참

여할 것을 편할 때 참석 못하겠다는 파치 못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과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경사스러운 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모임과 봉사 때문에, 어떤 이는 아침 일찍 다른 봉사를 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 교회 내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어떤 이는 가족을 우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등 모두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대담이었습니니다.

그럼에도 장년4부는 영혼 사람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음을 모두의 표정과 대화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과 장로, 집사, 권사, 교사의 직분과 지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인 앞 전도의 열정을 발휘하는 모습은 어느 누구도 이룰려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날 제1교육관 301호 집회장 앞에는 새가족을 환영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렬이 계단과 승강기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과 새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이 넘쳤고, 사람들이 집회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목사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회는 더욱 은혜 충만하였습니다. 1부 순서 후 새가족 환영 시간에 장년4부에 처음 나온 새가족이 오늘 나오기를 장려했다며 함께 큰 박수를 칠 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감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장두령(교사, 장년4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죄와 허를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몸 된 교회를 섬기며 말기신 소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채워주시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장년3부 총동원 전도집회에 참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60대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세상 끝 날까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장년3부 초창집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연숙(권사, 장년3부)

은혜의 생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함들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따진다. 좋은 환경,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좋은 물건 등. 나도 좋은 것들만 선호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좋은 줄만 알았지 조금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철없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좋은 조건들만 따지고 사람들 앞에서 좋게만 보이려고 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다. 무엇보다 처한 환경마다 나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였다. 다니엘은 전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반면, 나는 지금껏 나 자신만의 믿음으로 변덕이 심했다.

쉽게 변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한 채 변덕이 심한 믿음이 가진 믿음의 소유자인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보게 수백에 있었다. 어려운 환경만 보면 조건을 걸고 나 자신을 향해 타협하려 했던 철없는 나 자신 앞에 거짓되었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 다니엘을 행해서 단지는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도 단지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지금껏 내가 가진 믿음을 축복으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을 과장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을 좋게 설명하려 했던 모습은 내 나만의 믿음으로 세상과 거짓과 타협하는 믿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여야 한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함에 다시 은혜를 받는다. 나 자신의 신앙만도 못한 나의 못한 믿음을 회개하며 오늘도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실들을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모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한다.

김성호 목사

*2011년 10월 2일 주일3부예배, "다니엘의 믿음"(단 6:1~23) 말씀을 듣고.

전도 편지

TO. 예수님을 믿을 내 친구

나는 말이야. 31살 수민이라고 해. 교회엔 어렸을 적부터 다니지는 않았지만, 올해로 5년째가 되었다. 5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너무도 든든한 분이셔서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나 커다란 사랑 때문에 그 감정이 흘러 넘쳐서 눈물이 나. 궁금하지 않니? 어떠한 분이신지 말아야. 나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도 그냥 미신의 존재라 생각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지가 약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 나 자신만 굳게 믿고 나만 우뚝 서 있으면 된다고 참 곳곳에서 있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이심을 알게 된 때에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어. 너도 아마도 과거의 나처럼 아무것도 안 믿고 있었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그 때가 되면 지금보다 할 수 없는 내 이야기를 가슴으로 알게 될 거야. 너에게 그 때가 빨리 다가오길 기도할게.

나와 같이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손 꼭 잡고 찬양 부를 그 날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되는구나. 그 때가 꼭 이루어질 바라네. 안녕.

2011. 10. 1.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는 수민이가.



청지기훈련

프리뷰 preview



말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24)

이번 청지기훈련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1]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너희의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며. [3]더 받으리라. 각각의 소주제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전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내 말을 귀 담아 듣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귀 담아 들어야 할 말은 당연히 복음이다. 천국과 지옥을 놓고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준다.

찬양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외 6곡

청지기훈련의 특징 중의 하나는 찬양을 통한 은혜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말씀이 녹아내려져 있는 7곡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생명의 양식,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다, 그 옛날 주가 결으신, 거룩한 성>은 그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더욱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행 안내위원의 인도를 받으면 더욱 은혜로워요!

청지기훈련은 아기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복음의 잔치이다. 본당은 물론, 각 소예배실까지 꼭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게 된다. 그런 만큼 기본 질서가 필요하다. 예배실에서는 예배위원의 안내에 따라 참석하며, 차량은 주차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다수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안내위원의 인도를 받으면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청지기훈련을 기다리는 기도

예멘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아라뫼산 노아에게 하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시내산 모세에게 하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호렙산(시내산) 엘리야에게 하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갑보리산 오르본 강도가 듣는 소리 듣게 하소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밤마다 슬피 우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듣게 하고
핀 숲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의 목소리 듣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복련(집사, 2교구)

청지기훈련 좌석

본당 1층좌석배치

감 단					
2 교구	24 교구	1 교구	방학생 대학부 학년부	22 교구	17 교구
4 교구	11 교구	6 교구	14 교구	16 교구	12 교구
방문 자석	애배 다부			13 교구	13 교구

*예배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세요

본당 2·3층좌석배치

18 교구	10 교구	23 교구	9 교구	8 교구	21 교구
15 교구	5 교구	3 교구	20 교구	7 교구	19 교구

안 내

- 이번 주 화·금요일 기도원 집회, 수요일 총천전도대원훈련·구역장 영성훈련 및 금요구역예배는 쉽니다.
- 탁아부실(선교관 1층, 작은 방·0~3세, 큰 방·4~7세)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관 1층, 3세 이하) 및 베타니홀(본당 1층, 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단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단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하시시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건안될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천교회와 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서류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875	이지환	영아부	12		2886	박정표	양육부	12	이윤재
2876	강지훈	영아부	23		2887	이소라	양육부	1	정문태
2877	권순범	영아부	23		2888	문예지	초등1부	24	임철희
2878	하 율	영아부	11		2889	이종성	양육부	10	홍미화
2879	장세운	영아부	1		2890	임소형	초등2부	13	도승애
2880	최경준	영아부	12		2891	강대성	양육부	16	강인석
2881	강두혁	영아부	17		2892	김성우	예비다부	25	박인기
2882	안효원	24	박성희		2893	이다한	중등부	8	김예림
2883	손민정	양육부	18	최지아	2894	유지연		4	
2884	박인태	2			2895	정정환	3	심효숙	
2885	류소민	초등1부	13						

교회소식

Copyright © 2011 중원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